

2008년 10월 24일 금 말씀

항상 극적인 자들이 일도 열심히 하는데 또 일도 저지릅니다. 꼭 그렇습니다. 빨리 뛰면 금방 지쳐버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안 됩니다. 노련하게 해야 합니다. 넓은 땅에 사는 사람도 좁은 땅에 사는 사람도 다 똑같이 철창 없는 감옥입니다. 나는 옛날 보다 너무 좋습니다. 산속에서 좁은 굴속에서 완전 공기도 안통하고 습기도 있는데서 내가 살았었습니다.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잘 지냅니다.

내가 영국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영국이 제일 잘 됩니다. 사람들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음식 준비했던 걸 준비했던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. 영국은 지금도 권위주의나라고 대형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이 지금도 꼭 차있습니다. 그러니 계속 잘 쳐다보면서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. 한국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위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.

내가 18개국 나라를 돌아다녀보면서 월명동 조경을 교정하려고 봤는데 없었습니다. 중국에도 없었습니다. 월명동 작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. 땅 살 때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. 사람들은 자기 집이 가장 크고 좋은 집인지 잘 모릅니다. 돌아다녀봐야 압니다. 예전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계획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. 그러나 나는 계획적으로 안 했습니다.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. 앞으로 행사 하려면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십시오. 행사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.

백 개 나라 금방 개척됩니다. 그 나라 사람 하나씩만 전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다. 일본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많이 넣었습니다. 내가 영국 가서 일으켜 놓은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면 됩니다.

10월 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는 해마다 계속 해서 할 것입니다.

매일 100명 선교 한다고 하지 말고 한 대학교가서 300명씩 밀어붙여보십시오. 내가 25번 이상 강연하니깐 300명이 된 것이었습니다.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은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. 20명 30명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. 70명에서 100명은 넘어가야지 캠퍼스 교육받을 것입니다. 내년부터 중고등부, 캠퍼스 지원도 더 많이 해줄 것입니다.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.

백만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. 먼저 조직부터하면 사람은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.

월명동에서 영광 돌리는 것은 인원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. 이번 치어행사는 합동으로 해서 많이 오는 것이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.

내가 10년 동안 어느 정도 해 놓고 온 것이 있으니 보람이 있습니다. 내가 해 낚기에 이번에 비행기로 몇 대씩 날아온 것입니다. 내년부터는 30-40대 날아올 것입니다.

나는 10년 동안 28개국 나라 밖에 못 돌았습니다. 나머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나가서 밀어붙인 것입니다. 내가 못가니까 나가서 밀어 붙이라고 했습니다. '내가 못 가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밀어붙이면 된다. 산골짜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 가자고 하면 막 쫓아다니니' 이같이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먼저 건너간 것입니다.

원래 말씀도 두 가지로 전해야 합니다. 세계로 나가는 말씀과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? 한국 사람은 매일 혼납니다. 그러니 해외 사람들이 한국은 왜 이렇게 혼나느냐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안쳐다 봅니다. 혼내는 나라 안 쳐다봅니다.

잘 되는 나라를 쳐다봅니다. 해외는 안 보이니까 혼이 안 나고 또 우리와 다릅니다.

글 써놓고 교정 없이 내 놓으면 그 책은 누가 썼어도 웃긴다고 합니다.

한국 사람은 잘 모릅니다. 한국 사람이 처음 개척해 나간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. 일본서 개척을 많이 나갔습니다.